

권두언

I.

‘역사’(歷史)라는 개념은 다의성(多義性)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역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과거의 사건과 사실들로 구성된 것(res gestae)이고, 다른 하나는 일어난 사건과 사실들을 기록 전수하고 또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해석하는 것(historia rerum gestarum)이다. 개념 표현에 알맞은 독일어에서 보면 어원적으로 전자는 ‘Geschichte’이고 후자는 ‘Historie’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의 용법으로는 오히려 ‘Historie’가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Geschichte’는 ‘그것에 대한 서술 내지 해석’을 지칭하고 있다.

서양에서와 같이 동양에서도 ‘역사’에 대한 정의(定義)가 불명확하고 그 기본적인 인식이 모호하기까지 했다. 사실 금세기에 접어들기까지 중국의 학계에서 ‘역사’라고 할 때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사실을 기록한 전적(典籍) 내지 사서(史書)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사학자(史學者)들의 고증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史)의 본래적 의미는 전책(典冊)을 지니고 사실(史實)의 기록을 맡은 사람, 즉 ‘사관’(史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 기록된 것, 이를테면 「二十四史」나 「十七史」, 「史記」, 「資治通鑑」 등이 역사였던 것이다.

중국사학사(中國史學史)에서 이러한 사서나 전적에서 역사 자체를 떼어 놓아 역사를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전 인류의 삶’으로 본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선구자 이대교에 이르러서였다. 「史學要論」(1924)에서 그는 “인류생활의 전체를 종적으로 보면 역사이고, 횡적으로 보면 사회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서류나 책, 도표나 전적 등은 모두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 잔영이지 살아있는 역사의 본체는 아니라고 했다.

서양의 사학(史學)에서도 역사는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과 사실의 연속

이라기보다 그것의 기록을 뜻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공자의 「春秋」보다 40-50년 늦게 나왔지만 Herodotus의 「역사」(historia)는 Cicero가 말한 것처럼 역사학의 서장을 연 것이었다. 그 이후 Thucydides나 Xenophon, Fabiuspictor, Cato, Tacitus, Plutarch 등이 서양 고대사학계를 주름잡게 되었는데 이들도 한결같이 사실(史實)의 연구와 기록을 역사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런 기록들에서 사건과 사실을 구분하여 후자를 개념으로 구성하여 역사 연구에 도입한 것은 중세 독일에서 'Geschichte'가 나오고 난 이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역사'란 한편으로는 사건과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기술과 연구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자는 역사의 객체성, 후자는 역사의 주관성을 나타낸다.

II.

사건으로서의 Geschichte는 우리의 실존과 관계되고, 기록으로서의 Historie는 우리의 관점과 관계된다. 르네상스 이래 서구의 역사가 오늘날 서구화된 인류의 실존을 특징짓는다면, 그 이래의 사학(史學)은 오늘날 인류의 관점을 형성한다. 이 시대의 역사관도 근대 서구 역사관의 기본 노선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낙관론적 진보사관을 제외하곤 말이다. 근대 이래 서구 역사관은 대체로 중세의 종교적 사관을 부정하여 인간중심 사관을 내세운다. 그들은 역사란 '인간'과 '인간의 일'에 근거한 '인간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적' 역사관이 아닌 '인간 중심적' 역사관을 피력한다.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근세적 생각은 물론 인민(人民)만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라는 Marx와 모택동의 말이나, 민중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중운동가들의 소리는 결국 이 근세적 역사의 '인간화'(人間化) 사상에 속한 것이다.

말하자면 근세의 역사가들이 부르조아의 세계관으로 역사를 해석하든지 아니면 Lenin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 중심으로 역사 구

성을 외치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인간중심적 역사관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에 대한 모든 내재적 관점을 비판한다. 역사의 중심에 인간을 두는 것은 물론, 역사의 과정에 어떤 내재적 법칙을 부여하는 것도 비판한다. 인간 중심의 역사를 운위하는 이들은 대개 인간 중심의 사법칙론을 얘기한다. 물론 Johann G. Herder나 O. Spengler처럼 역사에 자연법칙의 도식으로 접근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입장은 역사에 대한 내재주의적 접근이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초역사적 섭리를 본다. 그러나 그것은 F. Meinecke가 표방한 Platon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가 그 속에서 인간이나 집단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 이끌려짐을 알고 또 그 점을 고백하는 것이다. 옛날 교부들은 눈에 보이는 국가의 흥망에서도 그것에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다. 역사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시간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 작용한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역사의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역사의식은 우선은 섭리적 역사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섭리적 역사의식에는 소위 구원사적 의미도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의 성격을 하나 더 들자면 종말적 역사의식을 들 수 있다. 종말적 역사의식은 역사는 종국(finis)이 있고 섭리와 예언에 따라 그 곳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종말의식은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창조적 역사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III.

기독교 역사의식에서 섭리적 측면과 종말적 측면 외에 한 가지를 더 들자면 현재의 영적 의미성에 대한 의식이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기이며, 또 창조에서 종말로 가는 흐름의 과정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

적 실존은 이런 역사의식 속에서 조명을 받아야 한다. 역사의식이 없는 실존은 일상성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과거의 사실(史實)에만 국한시킨 L. V. Ranke같은 실증주의적인 역사주의적 견해보다 차라리 모든 역사를 현재의 역사로 본 Croce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Carr의 주장에 더 귀가 기울여지는 것이다. 이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죽은 과거’로만 보지 않고 ‘산 과거’로 현재와의 관련성 속에 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식, 특히 섭리적 역사의식과 종말적 역사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있는 삶을 찾을 수 있고 또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의식이란 현재적 실존의 의미성에 있어서 중차대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은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역사를 사는 것이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은 모두 이런 역사의식을 지닌 이들이 역사에 동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기독교 역사학의 기초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호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여러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그리고 다양한 현대 역사철학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독교적 역사 이해”라는 제하에 이상규 교수는 우선 헬라의 회귀론적 역사관에서 히브리적·기독교적 역사관을 구분하여 성경적 역사관이 처음과 나중에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기독교 사관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구속사관, 섭리사관, 목적론적 사관을 말한다. 미국 Westminster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로 있는 Robert D. Knudsen은 “역사의 세속화”(The Secularization of History)란 논문에서 먼저 ‘세속화’의 두 가지 의미를 밝히고, 역사의 세속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역사의 절대화를 거부한다. 그에 의하면 ‘세속화’는 첫째, 교회 영역에서 비교회 영역으로의 전이(轉移)를, 둘째 어떤 것의 종교적 의미가 제거되고 내재화(內在化)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사의 세속화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라 한다. 역사에서 종교적 의미와 초월적 성격을 벗겨내고 그것을 오로지 내재화 시킨 것이야말로 근대 인본주의적 역사관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

로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내에서만 의미를 지닌다고 단언한다. 영국 Cambridge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중락 선생은 “신사학과 구사학: 20세기 후반의 역사 서술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이란 논문을 통해 우리에게 초근 구미 사학계의 흐름을 잘 소개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 그는 경제적 - 인구통계학적 결정론이나 경제 계층적 결정론에 근거해 있는 소위 ‘신사학’(New History)도 이미 ‘옛 것’이 되어질 정도로 시대의 변화 만큼 사학의 변화도 급격하다고 진단한다. 이 모든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주의의 이런 모습을 버리고 관점주의의 입장을 취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박재우 선생은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 역사관적 해석”이라는 논문에서 우선은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연구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관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내용을 규명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관은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성경적 사상의 전반을 그 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 역사관적 해석을 여러 측면에서 시도해 보고 있다.

이경아 선생의 “스코틀랜드 국민성약과의 영국혁명”은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역사적 과정이 복잡한 영국 언약운동의 발발과 과정을 역사적 발전에 따라 잘 정리하였고, 언약운동의 사상적인 내용도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

천진석 교수의 “Karl Löwith의 역사철학 비판의도에 관한 일 이해(一理解)”는 자신의 말처럼 뢰비트의 역사사상에 대한 다양한 비평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그의 역사철학비판의도가 역사적 인식과 행위에 있어서 신앙과 이성의 통합이 가져다 주는 심각한 파국을 들추어 내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김종건 선생과 오홍철 선생의 서평들도 이번 주제에 맞게 기독교 역사학의 기초를 놓은 데 좋은 시사점들을 던져 주었다. 그리고 이소희 교수는

“구약에 나타난 부모의 양육태도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 좋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동역자들의 이 귀한 연구들은 “철학은 사람을 깊어지게 하고, 수학은 사람을 엄밀하게 하며, 역사는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F. Bacon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보는 것과 역사를 사는 데에 더욱 지혜롭게 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94년 가을

편집인 전광식